

## 아트 에이프런(Art Apron)디자인 開發 研究

盧 潤 宜

東西大學校 디자인學部 패션디자인專攻 副教授

### A Study for Developing the Art Apron Design

Roh, Youn-Sun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Dongseo University

#### Abstract

Aprons are popularly used among women for domestic work. They also protect clothes from filth and at the same time become an ornamentation for fashion.

Despite their important use at homes and restaurants, beauty parlors, and hotels, little study has been done on aprons.

Commercialized aprons do not come in various forms, rather they use the same simple shape with different patterns. There has been no independent study done on aprons, however aprons have been studied as a part of uniform studies in the dining industry by Park and Na(2003) and uniform studies in the airline industry by Lee(2001) and Chung(2001).

In this study, the author looked into aprons in accordance to the change of housing space and life style. Not only to be worn in the kitchen, but also to greet guests or for a walk in the neighborhood, the apron needs to have various functions and a trendy fashion. Designs to pursue personality and high quality along with functionality and esthetical beauty were developed to present various functions of the apron.

**Key Words** : art apron(아트 에이프런), uniform(유니폼)

## 1. 서론

### 1. 연구목적

에이프런은 가사 일을 하기 위해 착용하는 여성의 가장 중요한 소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대 여성에게는 유행과 관계없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는 오물로부터 의상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패션을 만들어 내기 위한 중요한 장식역할을 한다.

이렇듯 에이프런은 주부가 가사 일에 착용하는 가정용뿐만 아니라 음식점, 미용실, 호텔 등에서 유니폼과 함께 사용되는 의상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에이프런에 대한 연구는 학계나 업계에서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 상품화되어 시판되고 있는 에이프런은 형태가 다양하지 않으며 단순히 문양에서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학계의 선행연구는 에이프런에 관한 단독 연구는 없었고, 요식업계의 유니폼 및 소품디자인의 연구 중 일부분으로 다룬 박우미, 나정은(2003)논문과 항공사 유니폼 디자인 연구 이신영(2001), 정나니(2001)에서 에이프런 디자인을 제시한 논문 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에이프런의 다양한 용도 중 주방용을 중심으로 아트 에이프런을 연구하였다. 주방의상 뿐 아니라 손님접대 및 동네 출입시 착용할 수 있는 다기능 스타일의 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최근 개성 있는 패션 스타일을 선호하고 패션의 고급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전개하였으며, 심미성과 기능성을 강조한 아트 에이프런 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에이프런 디자인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조사 방법에 의한 이론적 고찰과 그것을 토대로 한 작품제작으로 구성하였다.

이론적 고찰로는 에이프런의 정의 및 기원, 에이프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고 아트 웨어의 정의 및 아트 에이프런의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에이프런을 예술적인 측면과 결합하여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아트 웨어와 에이프런에 대한 국내외 도서와 논문을 수집·정리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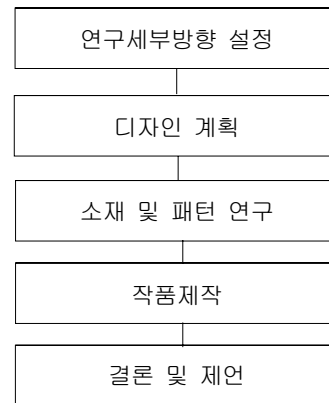
디자인 방향은 소비자의 다양한 개성에 의한 선택의 폭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단순한 형태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개발하였다.

특히 면직과 비닐소재를 중심으로 전개하였으며 하나의 디자인 모티브를 2~3개씩 시리즈화함으로써 변화를 구할 수 있게 제작하였다.

디자인 개발한 것은 실물 제작하고 모델에 착용시켜 객관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진행과정 순서도



## II. 이론적 고찰

### 1. 에이프런의 정의 및 기원

에이프런(apron)은 의복을 보호하거나 장식하기 위하여 앞에 두르는 작은 치마로서 행주치마 또는 앞치마라고 한다. 에이프런의 어원은 넵킨의 뜻인 라틴어의 마파(mappa)에서 왔고, 불어로 나프롱(napperon), 중세 영어로 napron인 것이 apron이 되었다. 기원은 고대 이집트인데, 당시에는 왕이나 사제(司祭)들이 권위의 상징으로 입

었다.

요의(腰衣)는 허리에 둘러 입는 간단한 옷을 가 르키는 것으로, 이집트인이 입었던 요의를 로인 클로스(loincloth)라 한다. <그림 1>의 ①은 가장 기본적인 로인클로스로 직사각형의 천을 허리에 한번 감고, 허리부분에 천의 끝자락을 끼워 넣거나 끈으로 매어 입은 것이다. 그림 ②는 앞중심에 피라미트 모양의 앞치마(triangular apron)를 덧입은 로인클로스로 초기 이집트에서는 특권 계층의 장식이었다. 초기에는 길이가 짧았으나 고왕국 말기부터 후기로 갈수록 무릎이나 발목 길이로 길 어졌다.

셴티(shenti)는 로인클로스가 변형되어 후기에 나타난 것으로 허리에 벨트를 하기도 하고, 어깨 에서 한 줄의 끈으로 지탱한 것 등을 벽화에서 볼 수 있다. 그림 ③은 속에 비치지 않는 천의 짧은 로인클로스를 입고 겉에 비치는 천으로 된 셴 티를 덧입은 것이다. 셴티는 후기에 킬트(kilt)가 나타나면서 노예계층에서 주로 입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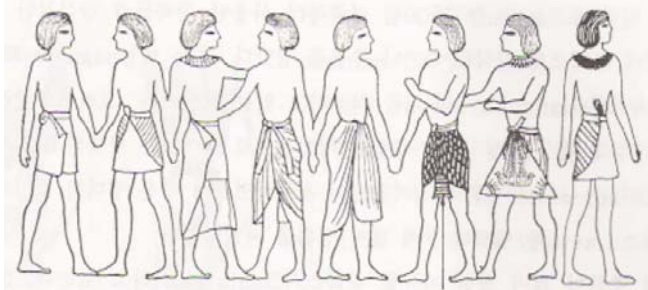
킬트는 어깨에 끈이 없이 앞부분에 주름을 잡아 장식한 것이 특징인 로인클로스의 변형이다. 길이는 초기에 허벅지 정도의 길이였으나 점차 길어져서 길이가 다양해졌다. ④,⑤는 옷길이가 길고 전면에 주름이 있거나 앞중심에 주름 잡힌 패널이 있는 킬트이다.

왕의 요의는 파뉴(pagne)라고 불리었다. 주름 이 전면에 있거나 파라오를 상징하기 위해서 술 (tassel)이 달린 허리띠를 매고, 파뉴위에 셴도트 (shendot)라는 장식천이나 트라이앵글라 에이프 러ンを 착용하였다. ⑥은 왕과 왕족의 남자들이 입 었던 옷으로 양쪽 끝자락이 도련에서 허리를 향 해 곡선으로 되어 있고 전면에 주름이 있으며 앞 중양에 셴도트라는 장식판이 늘어져 있다. 이 셴 도트는 B.C 2500년 이후부터 사용된 왕족들의 장식적인 부속품이다. 천에 보석으로 장식을 하 거나 주름을 잡았다. ⑦은 파뉴와 트라이앵글라 에이프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트라이앵글 라 에이프러는 태양의 햇살을 상징하는 주름이 방사선으로 들어있는 뾰뾰한 삼각형 모양의 에이 프러으로 왕족의 남자들만이 착용하였다.

후에 주름이 많이 잡힌 파뉴를 갈라 스커트 (gala skirt)라 했는데 ⑧은 왕족 의상인 갈라 스 커트로 앞자락 끝이 둥근 곡선이고 아코디온 주 림이 잡혀있는 파뉴이다.<sup>1)</sup>

복식 전반을 놓고 볼 때 에이프러는 가장 원형 적인 의복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단순한 것은 선사 시대 사람들에 의해 이미 사용되어 졌다. 초기에 는 나뭇잎·나무껍질·짐승가죽 등으로 만들어졌고, 식물의 끈·가죽 끈 등을 한 줄로 묶는 의복은 열 대 원주민의 가장 간단한 민족 의복이었다. 때로 는 작은 천을 요부 전면에 늘어뜨리는데 이는 에 이프러의 시초라 볼 수 있다. 더욱 발전하면 이러 한 늘어뜨리는 것들이 허리 주위 전체를 감싸는 형태가 된다. 식물체를 허리 주위에 늘어뜨리는 것이 이른바 요사(腰囊)이다.<그림 2>

에이프러가 유럽에서 상류층 여성 의복의 일부 가 되어 장식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16세기 이후의 일이다.<sup>2)</sup> 중세에는 무장(武裝)의 일부로도 착용하였는데 에이프러으로서 사용된 것은 16세 기경이며 상류사회의 사람들이 주름으로 아름답 게 장식된 것을 입었다. 17~18세기경에 상당히 유행해서 형을 작게 하고 레이스와 자수로 장식 한 것, 포켓이 달린 것, 삼각형이나 마름모꼴의 가슴 바대가 있는 것 등이 나타났다. 특히 유명한 것으로 프랑스 앙리 4세비(妃)의 에이프러가 있는 데 다이아몬드와 진주로 장식된 것이다. 이에 비 해 일반인이 사용한 에이프러는 의복의 오염 방 지를 위해 폭이 넓고 세탁이 쉬운 실용적인 것이 었다. 현대에 와서는 장식용보다는 실용성에 중 점을 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일상생활에 정 취와 꿈을 주는 디자인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에이프러의 모양·크기는 유행하는 의복, 특히 스 커트의 길이·모양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착용 목 적에 맞게 개량되어 가슴 바대가 있는 형, 오버스 커트형, 점퍼스커트형, 스목형 등이 있고 세탁에 견디는 목면이 많으나 그 외에 비닐클로스·에나 멜클로스·아세테이트·폴리에스테르 등 다릴 필 요가 없는 합성섬유인 것도 많고, 피혁·고무제품 등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그림 1> 이집트 요의 종류, 의복문화사 p.109**

- ①,② : Loincloth ③ : shenti ④,⑤ : kilt
- ⑥ : pagne(shendot) ⑦ : pagne(triangular apron)
- ⑧ : gala skirt



① ② ③  
**<그림 2 >열대원주민 의복, 의복문화사 p.12**

- ① : 요의 앞에 나무과 잎
- ② : 앞치마 ③ : 요사

## 2. 에이프런의 종류

에이프런을 용도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가정, 전문점용: 가정과 점포의 개성과 기능에 맞게 제작되고, 소규모 점포에서는 유니폼 대용으로 착용가능

- 용도: 일반 가정용, 전문커피숍, 미용실, 식당, 호프집, 요리학원

2) 판촉용: 다량으로 제작하여 회사의 로고나 특정상품의 내용을 나염으로 찍을 수 있어 광고 판촉용으로 활용

- 용도: 주류회사, 식품회사, 단일행사시 유니폼 대용, 고객사은품, 특산물홍보용, 기념품

3) 방수용: 세척, 작업등 물일을 하는 곳에는 필수적인 상품으로 매장특성에 맞는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

- 용도: 주방, 미용실, 생선·정육코너, 세차장, 꽃집

4) 전자파차단용: 전자파차단용 원단은 국립

기술품질원에서 ASTM D-89(American Society of Testing and Materials)방법으로 시험결과 주파수에 따라 차폐효과는 다르나 모두 20dB 이상을 얻음으로써 입사전자파의 99%가 차단되는 제품. 원단은 도전성을 띠며 습기와 물기에 약해 물세탁 시 차폐성능이 저하될 수 있어 탈착 장치를 이용하여 떼어내고 세탁 건조 후 쉽게 재 부착할 수 있게 제작

- 용도: 가정, 은행 등 PC를 다루는 오피스걸, 컴퓨터학원, PC방, 전자부품 생산 공장

5) 일회용: 페인트 칠 등의 작업 시 작업자를 오물로부터 보호하고, 가볍고 부피가 작은 소재를 사용하여 보관이 용이하여 상비용으로 적합함

- 용도: 페인트 칠, 도배작업, 병원, 차량수리 및 세차, 학습용, 도예용, 산업용, 음식점

## 3. 아트웨어(Art Wear)와 에이프런

1) 아트웨어의 정의

인간은 타고난 자기의 모습을 변형시키려는 노력이 시작되면서 의복에서 단순한 보호 이상의 것을 항상 요구하였다.<sup>3)</sup> 따라서 아트의상의 발생

은 기계문명의 발달로 많은 기성품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의 자아 속에 개성을 인식하고 미술적 의상을 통한 자기표현을 추구하게 되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sup>4)</sup>

아트웨어(art wear), 웨어러블 아트(wearable art), 패션 아트(fashion art), 조형 의상 등으로 불리는 것은 섬유미술과 의상의 결합으로 파생된 새로운 형식으로 1960년대 말 미국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미술의상의 정의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의상이란 미술의 개념과 의상의 기능을 결합시킨 새로운 표현양식이다.”<sup>5)</sup>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섬유미술의 새로운 표현양식을 찾음과 의상분야의 조형적 표현이 만나서 새로운 연구와 시도로 각 분야의 특징을 수용함으로써 파생된 또 하나의 예술양식을 의미한다.

둘째, “미술의상이란 내부의 무형의 아이디어가 외부의 인체라는 대상을 통해 유형화된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각각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영감으로 인체를 덮음으로써 인체의 생명력을 불러넣는 표현 양식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의상의 단순한 형태를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예술적 충동을 움직일 수 있는 인체와 이를 감싸고 있는 옷을 매체로 하여 표현하며, 인간에 대한 해석을 다각도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sup>6)</sup>

현대 미술의상은 회화, 조각, 공예 등 그 근원이 되는 분야의 특성이나 각자 개인의 자질에 따라 창작 과정의 접근 방법과 표출되는 이미지가 매우 다양하다. 대체적으로 수공예 기법을 응용하는 공예적 접근 방법으로부터 출발한 미술의상에는 “색채, 질감을 중심으로 하는 회화적, 평면적 접근방법과 적극적, 소극적 공간의 상호관련성 그리고 외부 구조와 내부 공간과의 관계 또는 표면의 구조적 실루엣과 내부 인체와의 공간적 대화를 다루는 조각적 환경적 접근 방법 등이 있다.”<sup>7)</sup>

## 2) 아트 에이프런의 특성

### (1) 심미성

심미성은 개인에 따라 다르나 대중이 공감하는 공통의 미의식으로 시대성, 국제성, 민족성, 사회성, 개인성 등의 복잡한 것이며 전통이나 유행에 의해서 좌우되기도 하며 대상자의 기호에 대한 조사 자료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얻을 수 있다.

인간의 심리면에서 보면 아름답고 신체에 적합한 옷을 착용하였을 때 착용자의 만족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쾌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sup>8)</sup>

의복의 심미성은 의복이 주는 큰 역할인 동시에 착용자는 물론 보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준다. 그러므로 인간은 아름답고 신체에 적합한 옷을 착용하였을 때 만족감을 얻는다. 신체를 아름답게 장식하려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sup>9)</sup> 따라서 아트 에이프런은 착용자의 기호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부차적인 요소는 타인에게 시각적 즐거움도 함께 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특히 능률을 높이기 위해 옷에 특별한 신경이 쓰이지 않도록 안정성이 있는 것이 좋고 신체를 보호해 주는 동시에 아름다움과 전통성을 주는 것이 좋다.<sup>10)</sup>

### (2) 기능성

아트 에이프런은 착용하고 일을 하거나 활동한다는 측면에서 기능적이어야 하며 착용자의 작업 내용, 활동량, 계절적인 문제, 위생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작업 능력의 향상과 유쾌한 기분으로 일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능적인 면에서 경쾌감을 줄 수 있도록 행동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장식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자주 세탁을 해야 하므로 흡수, 건조가 잘 되고, 세탁성도 좋고, 구김이 잘 생기지 않아야 한다.<sup>11)</sup>

또한 착용 중 구부리거나 마찰을 하게 되므로 이에 견디는 내구성도 좋아야 경제적인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sup>12)</sup>

형태는 첫째, 쾌적한 의복 기후가 유지되며 체온 조절이 용이한 형태여야 하고 둘째, 작업으로 인한 의복의 온도와 습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방열이 저해되지 않는 형태로서 기후에 적응하는 디자인이 좋다. 셋째, 활동 시 경쾌감을 주고 피로를 경감시킬 수 있는 것이 좋다. 넷째, 신체 활동 시 필요한 여유분 등 인간 공학적인 측면에서도 연구가 되어져야 한다.<sup>13)</sup>

즉 인체의 생리 운동 기능을 만족시키는 성능과 신체의 형태에 적합하게 하기 쉬운 구조를 갖추는 복장을 요구하는 것이다.<sup>14)</sup>

### III. 작품제작

#### 1. 제작의도 및 방법

아트 에이프런은 기능과 스타일의 조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불필요한 장식이 작업 활동 시 능률을 떨어트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따라서 디자인 방향은 소비자의 다양한 개성에 의한 선택의 폭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단순한 형태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개발하였으며, 기능적인 면에서도 경쾌감을 줄 수 있도록 행동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장식을 사용하였으며 혼자서 입고 벗기에 불편함이 없게끔 단추 또는 끈으로 여밀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소재는 옥스퍼드지(oxford cloth), 데님(denim), 머슬린(muslin), 바티스트(vatiste) 등의 면직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면직의 장점 중 내구성과 흡수성이 좋아 착용감이 좋고, 견뢰도가 좋으며 세탁이 쉽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하였다. 또 한가지 비닐(vinyl) 소재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구김이 잘 생기지 않고 음식물이 묻어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점, 물 작업시 방수처리 된다는 장점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미성과 기능성을 고려한 아트 에이프런 디자인 연구를 통하여 폭넓은 에

이프런 디자인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본 논문 작품은 총 12작품이 제작되었으며 아이디어의 모티브는 기하학 형태, 의상 형태 변형, 유머 이미지 표현 등 다양한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 2. 작품해설

##### 1) 작품 I

- 작품제목: 겨울 파도
- 칼라: 아이보리(Ivory), 올리브 그린(Olive Green), 브라운(Brown)
- 소재: 머슬린(muslin)
- 작품설명: 브라운과 올리브 그린 칼라의 조합으로 파도에서 느껴지는 자연의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좌우 비대칭으로 디자인하여 내추럴한 분위기를 강조하였다. 소재는 착용감이 좋고 세탁성이 좋은 머슬린을 사용하였으며 허리 부분에 끈으로 묶는 여밈을 사용하여 혼자 입고 벗기에 편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 2) 작품 II

- 작품제목: White Dandy
- 칼라: 화이트(White), 블루(Blue)
- 소재: 바티스트(vatiste)
- 작품설명: 테일러드 칼라와 허리에 묶는 앞치마를 연결시켜 댄디(Dandy)풍의 이미지로 디자인하였다. 칼라와 앞치마의 연결부분은 단추를 이용하여 분리되는 형태로서, 칼라 부분을 떼고 착용하면 허리 아래 부분에만 간단히 둘 수 있는 형태가 된다.

##### 3) 작품 III

- 작품제목: Simplicity
- 칼라: 블랙(Black), 화이트(White)
- 소재: 옥스퍼드지(oxford cloth)
- 작품설명: 화이트와 블랙이 주는 심플한 이미지

를 비대칭의 점퍼스커트 형으로 디자인하였다. 일상복과 같은 느낌을 주며 손님접대나 간단한 외출 시 착용할 수 있는 원피스 형태의 디자인이다.

#### 4) 작품Ⅳ

- 작품제목: Pink Rainbow
- 칼라: 핑크(Pink), 오렌지(Orange), 블루(Blue), 레드(Red), 그린(Green)
- 소재: 옥스포드지(oxford cloth)
- 작품설명: 에이프런 위에 조끼를 한쪽만 덧입은 형태로 디자인하였으며, 칼라폴한 나무 구슬과 심플한 형태의 비대칭 형태가 어우러져 화려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준다.

#### 5) 작품Ⅴ

- 작품제목: 여름 은하
- 칼라: 오렌지(Orange), 핑크(Pink), 블루(Blue), 레드(Red), 그린(Green), 바이올렛(Violet)
- 소재: 옥스포드지(oxford cloth)
- 작품설명: 에이프런 위에 짧은 조끼를 덧입은 형태로 디자인하였으며, 비비드 칼라(Vivid Color)의 화려한 나무 구슬로 장식하여 은하와 같은 이미지를 주고자 하였다.

#### 6) 작품Ⅵ

- 작품제목: Bride of June
- 칼라: 아이보리(Ivory), 레드(Red), 그린(Green)
- 소재: 옥스포드지(oxford cloth)
- 작품설명: 솔칼라의 앞판만 가린 형태로 디자인하였으며, 수직구도의 꽃무늬 패턴과 어우러져 여성스럽고 고급스런 이미지를 준다. 앞에 단추처리를 하여 입고 벗기에 용이한 디자인이다.

#### 7) 작품Ⅶ

- 작품제목: July Picnic
- 칼라: 아이보리(Ivory), 스카이블루(Sky Blue), 그레이(Gray), 브라운(Brown)
- 소재: 바티스트(vatiste), 비닐 가죽(vinyle leather)
- 작품설명: 배낭을 모티브로 전개한 디자인으로서 유머스런 분위기를 줄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바탕천은 수직 스트라이프 패턴의 면을 사용하였으며 끈과 포켓 등 장식 부분은 비닐 가죽을 이용하여 발랄하고 캐주얼한 분위기를 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 8) 작품Ⅷ

- 작품제목: May Picnic
- 칼라: 핑크(Pink), 옐로우(Yellow), 화이트(White)
- 소재: 바티스트(vatiste), 비닐 가죽(vinyle leather)
- 작품설명: 작품Ⅶ을 시리즈화한 작품으로서 배낭을 앞으로 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다. 핑크계열의 체크 패턴을 이용하여 발랄하고 화사한 분위기를 주었다.

#### 9) 작품Ⅸ

- 작품제목: Good Morning!
- 칼라: 화이트(White), 옐로우(Yellow)
- 소재: 비닐(vinyl)
- 작품설명: 반투명 비닐에 계란 후라이를 포켓으로 디자인한 것으로 유머스런 분위기를 준다. 계란 후라이는 유광의 비닐 가죽에 얇은 솜을 넣어 입체감을 주어서 실제 형태처럼 느낄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끝단은 바이어스 처리하였다.

#### 10) 작품 X

- 작품제목: Pink Square
- 칼 라: 핑크(Pink)
- 소 재: 비닐(vinyl), 비닐 가죽(vinyle leather)
- 작품설명: 비닐소재를 사용하여 물 작업 시 방수 처리되는 기능을 고려하여 디자인하였다. 핑크의 사각형 패턴에 얇은 솜을 넣어 입체감을 주었으며 기하학적 패턴이 연속적으로 반복됨으로서련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 11) 작품 XI

- 작품제목: White Circle
- 칼 라: 화이트(White)
- 소 재: 비닐(vinyl), 비닐 가죽(vinyle leather)
- 작품설명: 도너츠 모양의 원과 작은 원을 반복적으로 배열하여 귀여운 이미지를 주었으며 가장 자리에 흰색 비닐 가죽을 이용하여 바이어스 처리하였다.

#### 12) 작품 XII

- 작품제목: Blue Star
- 칼 라: 스카이 블루(Sky Blue)
- 소 재: 비닐(vinyl), 비닐 가죽(vinyle leather)
- 작품설명: 펄 느낌의 블루칼라를 사용하여 제작한 별 모양이 동화속 주인공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이다. 에이프런의 형태는 작업 시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심플한 라인의 원피스 형태로 디자인하였다.

###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에이프런 디자인 컨셉 개발을 통하여 다기능 의상의 에이프런으로 작업 시 뿐만 아니라 접대 의상 및 슈퍼마켓이나 가까운 장소의 외출까지 겸할 수 있는 주부 대상의 에이프런을 12점 제작하였다.

의복의 심미성은 의복이 주는 큰 역할인 동시에 착용자는 물론 보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어야 하므로 에이프런도 착용자의 기호에 맞아야 하며, 부차적인 요소는 타인에게 시각적 즐거움도 함께 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아트 에이프런은 착용 시 작업을 해도 편안하면서 착용자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리는 심미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고찰과 작품 제작을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식 전반을 놓고 볼 때 에이프런은 가장 원형적인 의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초기에는 나뭇잎·나무껍질·짐승가죽 등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에이프런의 기원은 고대 이집트로 볼 수 있으며 당시에 왕이나 사제들이 권위의 상징으로 입었다.

둘째, 에이프런은 사용용도에 따라 가정용, 판촉용, 방수용, 전자파 차단용, 일회용 등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아트 에이프런은 착용하고 일을 하거나 활동한다는 측면에서 기능적이어야 하며 착용자의 작업 내용, 활동량, 계절적인 문제, 위생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작업 능력의 향상과 유쾌한 기분으로 일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디자인 전개 시 기능과 스타일의 조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불필요한 장식이나 작업 활동 시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신경 쓰이지 않는 기능적인 것이 좋을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작품 제작 시 디자인의 모티브를 기하학 형태의 패턴, 의상 형태 변형, 유머 이미지 표현 등 다양하게 전개함으로써 기능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 전개가 무궁무진함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주방용을 중심으로 한 에이프런을 연구하였으나 이러한 연구방법은 주방용 에이프런 디자인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 미용실, 호텔 등에서 사용되는 에이프런 디자인 전개도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식탁보, 냅킨 기타 주방 소품과 관련지어 연구함으로써 주방의 토탈 룩(total look)으로서의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작품 I> 겨울 파도



<작품 II> White Dandy



<작품 III> Simplicity



<작품 IV> Pink Rainbow



<작품 V> 여름 은하



<작품 VI> Bride of June



<작품Ⅶ> July Picnic



<작품Ⅷ> May Picnic



<작품Ⅸ> Good Morning!



<작품Ⅹ> Pink Square



<작품Ⅺ> White Circle



<작품Ⅻ> Blue Star

### 참고문헌

- 1) 박일록, 조진애 (1998), “의복문화사”, 원광대학교 출판부, pp. 108-110.
- 2) “에이프런”, (2005. 10. 1), *야후 국어사전 자료검색*, 자료출처 <http://www.yahoo.co.kr>.
- 3) 블랑쉬 페인 (1988), “복식의 역사”, 도서출판 까치, p. 18.
- 4) 배만실 (1985), “현대의상 예술의 발자취와 성과”, *월간 멋 1월호*, p. 248.
- 5) Joan Goldberg (1986), “Art to Wear Visionary”, *Ornament*, vol. 10, no. 2, p. 42.
- 6) 김선희 (1999), “현대 미술의상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17-18.
- 7) 이해주 (1990), “실용의상과 미술의상”, *월간공예 디자인하우스 12월호*, p. 18.
- 8) 이신영 (2001),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11.
- 9) 이병홍 (1986), “우리나라 호텔 종업원의 유니폼 선호도에 관한 연구-서울 시내 호텔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0.
- 10) 和子 (1967), “피복학개론”, 건백사, p. 84.
- 11) 남윤자, 김경인, 이윤정 (1997), “유니폼 실태조사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한 연구II”, *복식*, 33, p. 231.
- 12) 신인수 (1986), “피복 위생학”, 경춘사, p. 115
- 13) 和子, op. cit., p. 84.
- 14) 김학연 (1979), “의복과 인간공학”, 명지대 논문 제3집, p. 155.

---

(2005년 7월 20일 접수, 2005년 10월 12일 채택)